

2017. 6.

## - 2016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 해외 선진사례 연수 결과 보고서

### ○ 목 적

- 선진 유럽의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 조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원정책 방향 모색
- 2016년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유공자 대상 업무역량 제고 및 사기진작

○ 기 간 : 2017. 5. 25.(목) ~ 6. 2.(금) / 7박 9일

○ 연수국가 : 이탈리아, 스위스

○ 연 수 자 : 8명(고용노동부 2명, 전국 자치단체 6명)

### ○ 방문기관

- 이탈리아 : Cadiat, Legacoop, Ccoone di bologna
- 스 위 스 : Freitag, Jobfactory



고용노동부



목포시  
MOKPO CITY

# 목 차

I. 국외연수 개요 .....	1
II. 국외연수일정 .....	2
III. 기관 방문 결과 .....	3
① Cadiai .....	3
② Legacoop .....	10
③ Comune di bologna .....	17
④ Freitag .....	22
⑤ Jobfactory .....	27
IV. 연수자 명단 .....	30

## I. 국외연수 개요

○ 연수기간 : '17. 5. 25(목) ~ '17. 6. 2(금)

○ 연수국가 : 이탈리아, 스위스

○ 연수목적

-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10년이 된 시점에서, 선진 유럽의 사회적기업 성공사례를 중점 조사하여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방향 모색

\* “2017년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선진국가의 사회적기업 우수사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사기진작 도모

○ 방문기관

기 관	기 관 성 격
CADIAI (이탈리아)	▶ 해고된 유치원교사, 간호사가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1985년 협동조합 설립, 오늘날 지역내 노인, 아동, 위기청소년 및 알콜중독자 등 사회적약자에게 돌봄·간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Legacoop (이탈리아)	▶ 사회적기업을 대변하고 중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연합단체, 각 지역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간 연계 지원, 신규 설립 인큐베이팅 지원, 성장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지자체 및 정부 등 관계기관 네트워킹 등 중간지원역할
Comune di bologna (이탈리아)	▶ 시민의 70%,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사회적경제 구성원(협동조합원)으로 유럽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5개 지역에 속하는 사회적경제 대표 도시(볼로냐 시청)
Freitag (스위스)	▶ “쓰레기 명품이 되다” 말처럼, 쓰다버린 트럭 덮개, 폐천막, 자동차의 안전벨트 등 폐자원에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하여 새로운 명품 가방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이클링” 사회적기업
JobFactory (스위스)	▶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경험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매년 300여명의 소외 청소년이 잡팩토리 쇼핑센터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그 중 70%가 취업·진학에 성공

## II. 국외연수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 고
5.25 (목)	인천	로마		• 이탈리아 도착	
5.26(금) ~ 5.28(일)			• 주변 지역 견학 • 자료준비, 분임토의	• 사전토론	
5.29 (월)			• CADIAI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성공 사례 학습	•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 Legacoop	•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 사례 연구	•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5.30 (화)			• Comune di bologna	• 사회적협동조합 등록제 운영방법연구	•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5.31 (수)	이태리	스위스	• 이탈리아 출발	• 스위스 도착 및 면담 준비	
6.1 (목)			• JobFactory	•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선진사례 학습	•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 Freitag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 성공사례 학습	•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스위스		• 출발		• 기내박
6.2 (금)		인천		• 도착	

### Ⅲ. 기관 방문 결과

#### ① 이탈리아 CADIAI (돌봄 사회적기업)

일시	<input type="checkbox"/> 방문일시 : 2017. 5. 29(월) 13:30 <input type="checkbox"/> 방문장소 : Via Boldrini 8, 40121 Bologna, Italia <input type="checkbox"/> 주요 면담자 : 라라프리에르 박사(국제담당)
방문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고된 유치원교사, 간호사가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85년 생산자·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오늘날 지역내 노인, 아동, 위기청소년 및 알콜중독자 등 사회적약자에게 돌봄·간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li> <li>○ CADIAI 명칭은 Cooperative(협동조합), Assistenza Domiciliare(재가 돌봄), Infermi(환자), Anziani(노인), Infanzia(어린이)의 머리글자를 딴 것</li> </ul>
중점 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b>오래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디아이는 2015년 40주년을 맞은 역사가 오래된 협동조합, 1974년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27명 회원중에 24명이 여성으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생산자·노동자 협동조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카디아이 설립멤버 〉</b></p> <div data-bbox="619 1366 1136 1724" data-label="Imag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날 카디아이 종사자는 1,574명, 매출 46백만유로(약 644억원)</li> </ul> <input type="checkbox"/> <b>카디아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는 A-Type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및 일반대중에게 네트워킹, 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li> </ul>

\* 사회적협동조합 A타입, B타입

A타입 - 일반인들이 사회적약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B타입 - 사회적 약자들에게 출소자, 장애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 카디아이는 모든 협동조합 본부인 레가콥(legacoop)의 멤버이자 사회적협동조합 본부인 legacoopsociali의 일원이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토스카나주와 에밀리아로마냐 주에 분포해 있다. 남부지역은 협동조합이 거의 없음



## □ 카디아이 미션

- 사회통합,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친목(social), 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조합원에게 가장 좋은 사회적, 경제적 근로조건을 갖춘 안정적인 일자리(stable employment)를 보장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고객 맞춤형 프로젝트와 끊임없는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제공
- 조합의 활동은 조합원의 참여와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 조합의 미래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정적 관리를 제공한다.
- 외국인 노동자 싱글맘, 결손자녀 등 사회적약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주요 활동분야

### ① Non Self Sufficiency: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요양시설, 방문요양, 보호작업장 등

### ② Educational: 아동 청소년 교육서비스

\* 어린이집, 유아돌봄, 교육 등

### ③ Prevention and Safety at the Workplace: 근로자 복지

## □ 품질 보증을 통한 신뢰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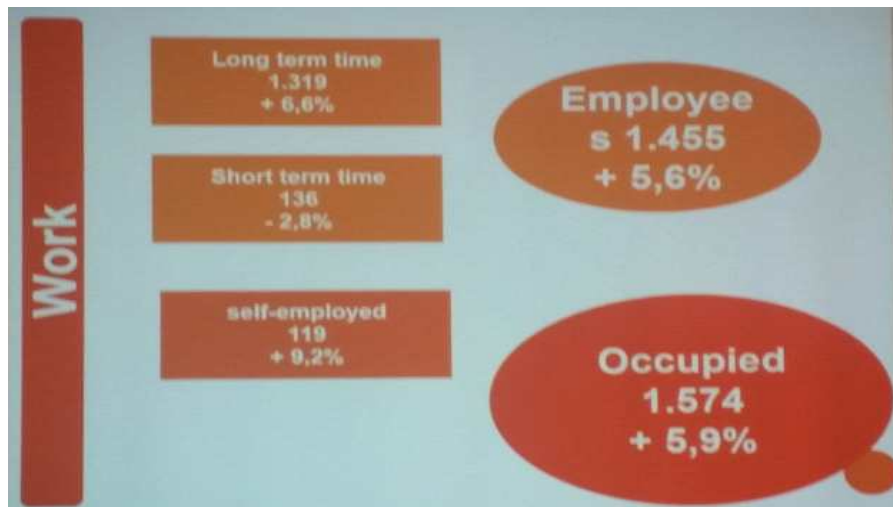
- 카디아이의 생산과정과 서비스내용에 대해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유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한다는 인증을 받음

\* ISO 9001:2008 품질인증

\* UNI 10881/11034/11010: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기관 인증

## □ 종사자 현황 : 1,574명

- 근로자 1,455명(장기근속자 1,319명, 단기근속자 136명)
- 자영업자 119명



## □ 조합원 현황 : 968명

- 총 종사자 1,574명 중 조합원에 가입한 자는 968명

\* 카디아이는 생산자·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종사자 중에서만 조합원 가입

## □ 극 취약계층 지원사업: 노숙인, 약물중독자

- 알콜중독자, 사행성 게임 중독자 등 다양한 중독자를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보건당국에서 불로냐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에서 중독자를 케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 시스템에 카디아이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역할은 ①약물치료, ②사회복귀 프로그램 즉 2가지 프로그램 운영, 이를 위해 의사 및 간호사 파견, 교육 전문가 및 사회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음</li> <li>○ 카디아이는 길 노숙인 등 중독자들을 찾아가서 치료약 제공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서 <u>환자 1명에 각 담당 의사를 배정하여 환자를 치료</u></li> <li>○ 약물치료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담당 의사 판정이 있으면 그때 사회복귀 프로그램 담당자가 환자를 받아서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한다.</li> <li>○ 약물중독자 중에서는 감옥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감옥을 갈지 사회복귀시설로 갈지 선택을 하거나 카디아이가 판단해서 한다.</li> </ul>
질의 응답	<p><b>Q (서비스대상)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는지</b></p> <p><b>A</b> 1,574명 종사자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가입의무는 없으며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 <b>협동조합은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조합 가입</b>, 어린이든 노약자든 조합원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즉 조합원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p> <p>* 카디아이는 A유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약물중독자와 같은 극 취약계층은 카이다이에서 일을 하여도 A유형인 카디아이 조합원이 될 일이 없다. 그들은 일을 하게 되고 B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B유형의 조합원은 될 수 있다.</p> <p>* (조합원 혜택) 운영자로서 투표권 행사, 조합에서 제공하는 별도 카디아이 서비스 혜택 참여, 어린이 집 등 이용료 할인,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카디아이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순위부여</p> <p><b>Q (정부보조사업 비중) CADIAI 자체사업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 비중</b></p> <p><b>A</b> 해년마다 다르다. 10년 전에는 80~90% 정부 보조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정부보조사업은 40% 정도 된다. <u>CADIAI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다. 사회적약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보조사업 외에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한다.</u></p> <p>* 경제위기 여파로 정부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있음</p> <p><b>Q (노동통합형) 한국에서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당부사항이 있다면</b></p>



A 1990년대 유럽 전체가 헤로인 중독으로 큰 문제를 앓고 있었다. 그 당시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전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들 스스로가 법적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즉,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노동통합형) 언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하였나

A 1990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정부차원에서 1990년 1986년부터 카디아이는 먼저 시작하였다. 정부와 카디아이가 비슷하게 시작하였다. 카디아이가 먼저 시작한 것은 공동주택, 정부는 보건소를 통해서 시스템을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협력적으로 시작하였다.

Q (극 취약계층 복귀) 중독자 등 극 취약계층이 사회복귀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A 이는 평균 낼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직업훈련 기간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절대로 낼 수 없다. 수치로 표현 할 수 없는 이유는 약물중독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있고 교육을 받아서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오는데 이는 개개인의 편차가 심하다.

대신에 알콜, 약물 중독자가 정상인의 범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2년간 인턴십을 제공하고 2년 후에 직업을 제공한다.

Q (사회복귀 직업군) 우리지역은 바리스타로 많이 사회복귀를 하는데 이탈리아는 어떠한 직업군으로 사회복귀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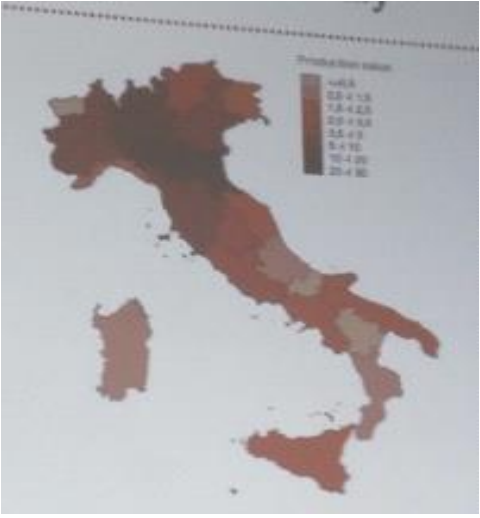

A 사회적협동조합(B유형)을 통해 인턴십을 제공한다. 치료의 완료단계에 대상자를 만나 어떠한 직업군이 좋을지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직업군을 찾아 보낸다.

	<p><b>Q (출소자 관련) 출소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제공은?</b></p> <p>A <u>교도소안에</u> 제소자들이 있을때부터 카디아이는 투입을 한다. 출소자는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한다. 다른 협동조합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시스템인데 카디아가 그 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출소하기 전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준비된 사람은 공동주택에서 다시 시스템을 제공한다.</p> <p><b>Q (극 취약계층 고용지원) 중독자 출소자는 기업이 채용하는 것을 꺼려할 것 같은데, 채용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b></p> <p>A 정부보조금은 2년간 고용한 기업에게 인턴십에 대한 월급을 제공한다. 그 사람이 그 회사에 그대로 취업을 되는 확률은 적다.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20명 교육을 해서 1사람만 인턴을 할 수 있었다.</p>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A유형은 정부복지사업을 전달하는 주요 집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복지정책의 성과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li> <li>○ 이탈리아는 복지사업을 정부가 직접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수행 ⇒ 사회적협동조합 주요 수입원이 정부보조금(매출의 80~90%)</li> <li>○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노동통합형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 및 종교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민간단체들과 협업체제, 그리고 각 전문기관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판단됨</li> <li>- 그리고 노동통합형에 대한 지원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li> </ul> </li> </ul>

< 기관 방문 사진 >



## ② 이탈리아 Legacoop Emilia Romagna (사회적기업협의회)

일시	<div data-bbox="300 329 1262 555"> <div>□ 방문일시: 2017. 5. 29(월)</div> <div>□ 방문장소: Viale Aldo Moro 16, 40127 Bologna, Italia</div> <div>□ 주요면담자: Alberto Aberani(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표)</div> <div>Marilena Raule(레가코프 국제담당)</div> </div>
방문 기관 정보	<div data-bbox="300 593 1367 913"> <div>○ 사회적기업을 대변하고 중간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 연합단체, 각 지역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합간 연계 지원, 신규 설립 인큐베이팅 지원, 성장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지자체 및 정부 등 관계기관 네트워킹 등 중간지원역할</div> <div>○ Legacoop(레가코프) 명칭은 Lega(연결)와 Coop(협동조합)의 합성어로 협동조합간의 연결을 의미하며 협동조합을 지원하기위해 1886년에 조직되었음</div> </div>
중점 확인 사항	<div data-bbox="300 958 1367 1926"> <div>□ Legacoop(레가코프) 현황</div> <div>○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 매출 중 35.1%가 Emilia Romagna 주에서 발생하고 있음, Legacoop Emilia Romagna는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협동조합 전체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연합회로, 볼로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육, 재정 및 협력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div> <div>* 이탈리아 협동조합 79,974개소, 근로자 1,521,501명</div> <div> <div>  <div>매출 분포(색이 진할수록 높음)</div> </div> <div>  <div>이탈리아의 레가코프 현황 지도</div> </div> </div> </div>

- 1,800년대 중반 유럽전역에 협동조합이 발생하였고 협동조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1,886년 레가코프 설립, 지난해 2016년, 설립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 협동조합은 1,900년대 초반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협동조합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
- 현재 레가코프는 이탈리아의 15,000여개의 협동조합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중에서 각 분야별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예 : 건축분야, 식품분야, 사회적서비스분야, 교육분야 등) 리더 협동조합이 있다.
- 이탈리아에는 3개의 협동조합 중앙회가 있는데, 이탈리아 협동조합연맹인 레가코프(LegaCoop), 협동조합연합(CCI), 협동조합총연합(AGCI)이 있으며,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약 50%이상이 이들에 소속되어 있다.
- 볼로냐에는 1,200여개의 협동조합이 레가코프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교육분야까지 진출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별 단계적 교육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과정 교육으로 청년이 주가 된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 □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1,970년 중반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음. 1,890년에 농협이 만들어지고, 1,900년 후반 슈퍼마켓에 관한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1,970년 중반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음
  - \* 이탈리아 협동조합연맹 중 비종교적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된 레가코프와 종교적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된 콘프로프라티브 두 곳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두 개의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
-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셜서비스, 보건서비스,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통한 취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이탈리아 정부는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카디아이(CADIAI) 또한 220개의 사회적 협동조합 중 하나임
- 사회적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수는 낮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과 가치관이 확고하며,

- 이들은 카디아이 종사자처럼 정신병동 수용자가 정신병동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이탈리아의 모든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탈리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약중독자와 약물중독자의 경우도 갇혀진 병원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보호 받고 있으며, 노약자의 경우 재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이 모든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짐, 하나는 보건, 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A타입, 다른 하나는 농업, 요식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B타입
- (A타입 사회적협동조합) A타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제공자들은 그 분야 전문가이지만 평균 월급여가 1,000유로 정도로 낮음
  - 이는 전통적으로 종교단체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종교활동 일환으로 자원봉사로 시작했기 때문임, 현재는 분야별 특성화된 전문가가 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 어린이 교육, 노인 복지 등을 전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수입 90%이상을 사회환원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비의 90%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 정부는 세금을 통해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90%를 정부 보조를 받아 운영함
  - 1975년까지는 복지사업을 정부가 100% 하였으나, 정부가 할 경우에는 질이 낮고 비용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음,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종류는 다양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정부와 사회적협동조합이 혼합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li> <li>○ <b>(B타입 사회적협동조합)</b> B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 정부가 법적으로 정의한 사회적 약자*를 최소 30% 채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장에서 정부 지원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농업, 산업, 관광,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산, 판매 등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약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 가정에 문제가 있는 미성년자, 재소자 등</li> </ul> </li> <li>- B타입은 정부사업과 관련 없으며 일반 시장에서 활동하며 시장 안에서 수익을 창출 한다. 예를 들어 바질 생산 농가는 취약 계층을 채용하고 취약계층은 바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일을 한다.</li> <li>- 현재 에밀리아로마냐주 볼로냐에는 4만명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종사하고 있고, 그 중 2만5천명이 레가코프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볼로냐 전체인구의 10%정도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셈이다.</li> <li>○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수입 대부분을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 왔기 때문임</li> </ul>
질의 응답	<p><b>Q 사회적협동조합 A타입 설립 요건?</b></p> <p>A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b>Q A타입과 B타입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을 알고 싶다.</b></p> <p>A 총 사회적협동조합 중 70% A타입, 30% B타입</p> <p><b>Q 사회적협동조합 법적근거가 생기면서 좋아진 것이 무엇인지? 정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된 것인지?</b></p> <p>A 2가지 있음, <u>정부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일을 주는데 있어서 신뢰가 생겼음.</u> 정부차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익을 나눠가지지 않고 이익을 재투자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비용절약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신뢰를 갖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키울 수 있음</p>



**Q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부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A**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총 사업의 90% 이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우 복지, 어린이 교육사업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음, 보건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음 초기 투자가 많기도 하고 의사회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음

**Q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없나?**

**A.** 없음

**Q A타입은 주로 정부를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B타입은 장애인 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A**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에 1,000유로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사람에 관해서 1,000유로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즉,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이 월 2,000유로를 지출한다. 근데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이 바로 복지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10명중 3명을 사회적약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이 급여가 1,000유로인 사회적약자 3명을 고용하면 3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아 3천유로를 버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 중 9명이 마약중독자이고 1명이 정상인이라면 10명을 고용했을 때 2만 유로가 비용이 발생하나 9,000유로는 지원을 받으므로 11,000유로만 비용지불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장점이다.

**Q B타입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로 사업 위탁을 받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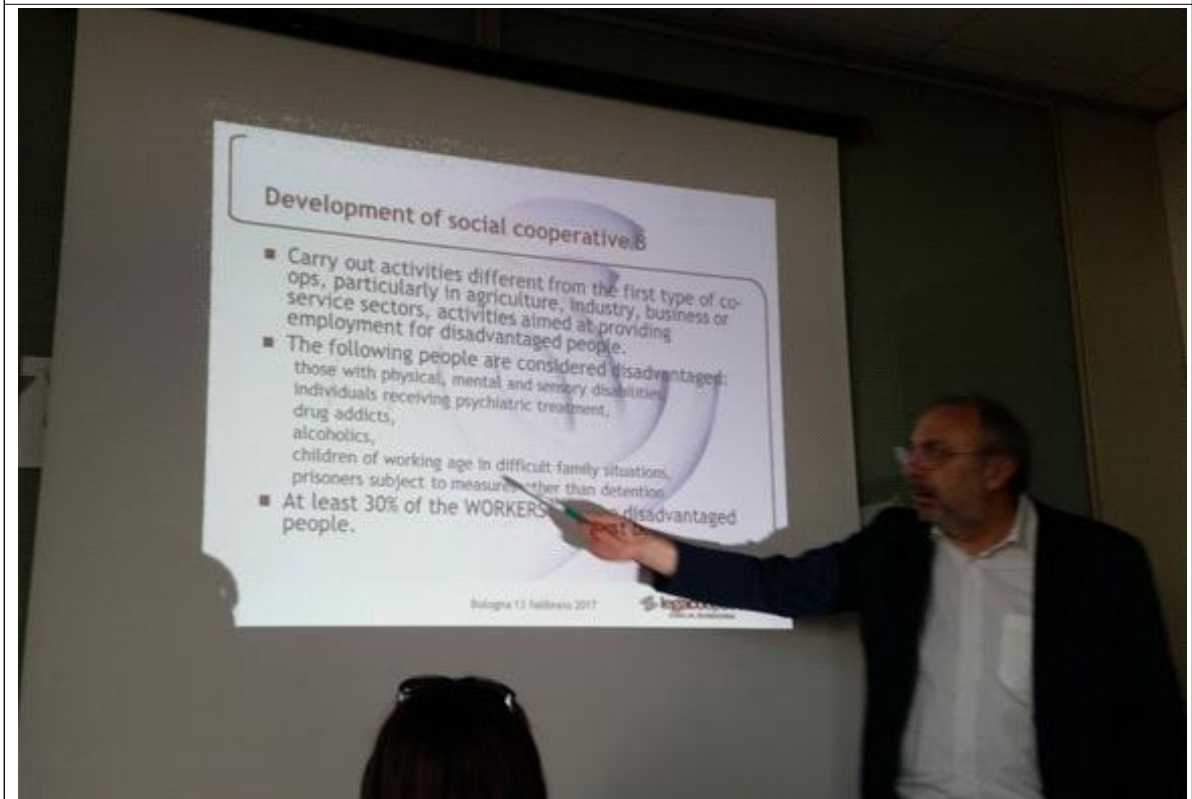
**A** B타입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한다면 주로 청소용역, 재활용 수거 등을 위탁받는다.

**Q 학부모들은 정부와 협동조합 어린이집 중 어떤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나?**



	<p>A 학부모들은 정부보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하는 어린이 집을 더 선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p> <p>Q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p> <p>A 조합원들끼리 회의를 하는지, 조합장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직원들이 정식 계약을 가지고 있는지, 레가코프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협동조합들 중에 가짜 업무를 보고 있는 협동조합을 많이 본다. 그러한 협동조합들은 해당 기관에 고소·고발을 한다.</p>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즉, 정부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평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매출이 정부 보조사업에서 발생할 경우 자생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보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신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인지, 사회서비스 성과물은 어떻게 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li> </ul> </li> <li>○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당사자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부정한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등을 실시하여 부정을 방지하고 관계 당국에 고소·고발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성이나 관련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당사자 조직들이 건전한 생태 환경을 위해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참고가 될 수 있음</li> </ul> </li> </ul>

## < 기관 방문 사진 >



### 3 이탈리아 Comune di bologna (볼로냐 시청)

일시	<p>□ 방문일시: 2017. 5. 30(화)</p> <p>□ 방문장소: Piazza del Martiri 1943 - 1945, 1, 40121 bologna, Italia</p> <p>□ 주요면담자: 프렌체시카 마르띠(국제담당), 실비아(마케팅 담당)</p>
방문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70%,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사회적경제 구성원(협동조합원)으로 유럽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5개 지역에 속하는 사회적경제 대표 도시</li> <li>○ 볼로냐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전체 사업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볼로냐 전체 시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향상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li> </ul>
중점 확인 사항	<p>□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한 볼로냐시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시청에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협동조합 부서가 별도로 있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시청 입장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 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에 요청을 한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li> </ul> </li> <li>○ 시청에서 투자를 할 때 최근 중점적으로 보는 2가지는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 2순위는 창의적인 젊은이들의 창업에 투자를 하는 ‘인크레더블’ 이다.</li> <li>○ 새로운 사업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서 보조가 주어진다. 유럽연합에서 많은 부분에서 보조를 받고 이탈리아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를 받는다. 실험단계에 대한 보조이다.</li> <li>○ 이탈리아 건물에 사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보조를 하는 것이다. 공간을 만들고 신청을 받아 조건에 맞는 사업체가 들어오도록 지원한다.</li> </ul>

- 이러한 사업의 장점은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도시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발전 자체에 기여를 한다.
- 그리고 공간을 제공할 때는 볼로냐시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좋은 건물인데 지금은 주인이 없거나 폐허가 된 특별히 그러한 건물을 선정해서 프로젝트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사업 공간으로 제공을 한다.
- 그러한 활동을 통해 도시전체의 미관이 개선되어서 좋고 또 공간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는 창업공간으로 제공되면서 도시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고 도시발전에 기여 한다.

○ 한 가지 예로, 종합병원이 어떠한 문제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었는데 볼로냐시는 종합병원자리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그 건물을 재사용 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다.

- 이러한 프로젝트는 보조금을 받기 전에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제출받은 것으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참여하거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참여를 신청하였고 그 중에 하나(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이 되었다.
- 지금 종합병원 부지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한 공간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농장,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난민들도 가서 일을 하고 볼로냐시민들도 함께 일을 하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 이러한 사업자체가 볼로냐시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에서도 인정을 받은 프로젝트이다.

#### □ 인크레더블(incredible) 사업

○ 인크레더블은 innovation cre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볼로냐 시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고 에밀리아로마냐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 그리고 볼로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에밀리아로마냐주 전체의 창업을 도와주는 전반적인 사업이다. 원래 있는 사업체를 도와 주는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사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 2010년에 재정적인 지원으로 시작하였고 2017년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는 큰 사업으로 확장 하였다.
- 2009년에 사업체를 3가지로 나누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첫 번째는 ‘문화’에 관한 분야이며, 패션산업이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는 ‘매스미디어’ 분야이다. 세 번째는 ‘역사, 문화유산’이다. 공연, 음악, 현대 미술 또는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건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인크레더블 참여 방법: 시청에서 공고, 프로젝트 접수, 선발, 지원 순이다.
- 지원: 처음 1만 유로 소액 지원, 돈으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간을 제공, 평생 제공은 아니고 4년을 계약하여 지원, 1번 갱신(4년) 가능,
  - (컨설팅)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제공
  - (커뮤니티 지원) 네트워크 구성·상담 지원
  - (프로모션 제공) 수상자들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이탈리아 국내 국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크레더블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젊다 25~30이 39%, 남녀 성비도 51:49(여성)로 참여율도 높다.
  - 여성사업자 중에 젊은이들에게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30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개인이 있을 수 있다.
  - 이들이 각 분야 전문가로 도움과 상담을 준다. 이 모든 것이 에밀리아 로마냐주 경제를 활성화 한다.
- 인크레더블 프로젝트 장점:
  - (창업기회 제공) 참여자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적어도 8년간 제공받음으로써 창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비용 절감) 시에서는 쓰지 않는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을 절약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동네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위험해질 수 있는 공간을, 사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안전이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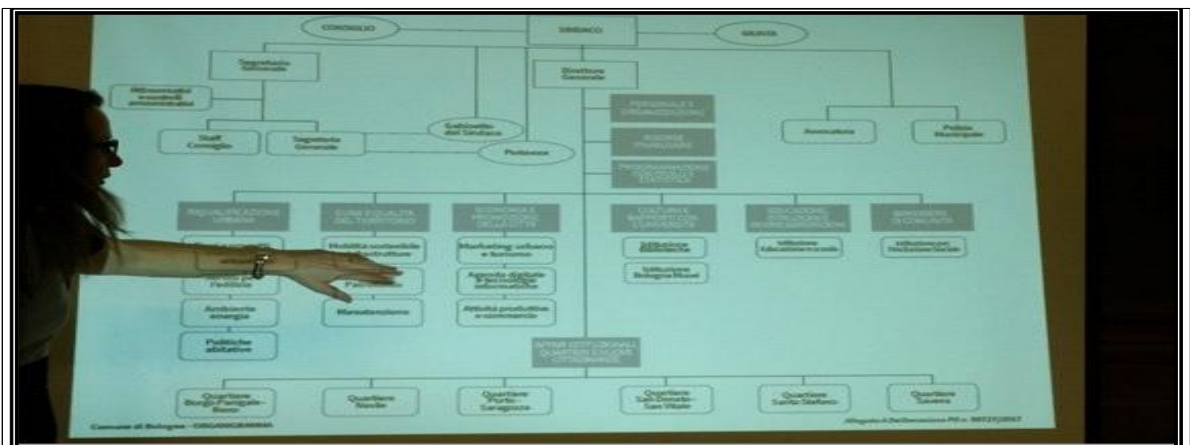
- (지역가치 상승) 부동산 사업자를 생각하면 폐허가 있는 것보다. 땅값 집값이 올라간다. 이탈리아 내부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인크레더블(incredible) 사례

- ▲ (자동차주차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전거를 보관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거나 자전거를 사용할 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만큼 자전거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였다. 자전거 보관소로 제공된 공간은 **과거 볼로냐 중앙역에 있는 자동차 주차장이 사용되었다.**
- ▲ (지역시장) 산토나토라는 지역에 있는 과거 시장이 있었던 공간의 인크레더블 사례이다.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역 재래시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되어 버렸다. 이 공간은 공모를 통해 1등을 받은 프로젝트에 제공되었고 30세 미만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이다. 공연·음악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 특징적인 것은 오케스트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없다. 시에 지휘자를 초청해서 시장도 구경을 하러 방문하면 시장 보고 지휘를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참여가 있다. 또한 클래식 음악을 알리는데 공헌을 한다. 어린이에게는 찾아가는 클래식공연이라 볼 수 있다.
- ▲ (크라우드펀딩) ‘진저’라는 상을 받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온라인에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였다.** 볼로냐에서 필요한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 하고 해당 프로

	<p>젝트를 후원한 사람들은 연주회 참석권을 받는 등 크라우드펀딩이다. 5유로부터 후원을 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p>
시사점	<p>○ 지방정부가 다양한 시책사업 등을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사업이 실제 시민과 만나는 접점에서는 대부분은 그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상당함.</li> </ul> <p>○ 지방정부임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감당하여야 할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등과도 협조하고 민간에는 과감하게 역할을 이양하는 등 어느 조직이 수행하여야 효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p>

## < 기관 방문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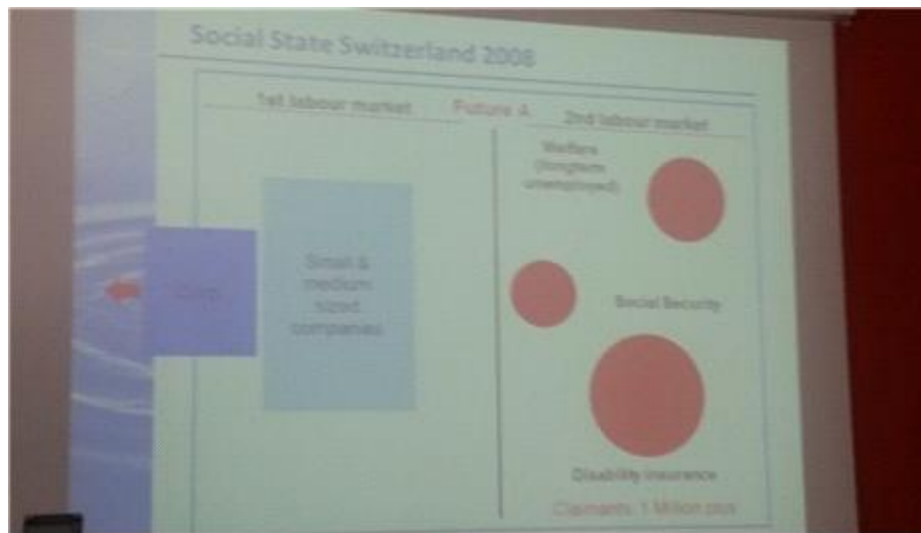
#### 4 스위스 Jobfactory (취업지원사회적기업)

일시	<input type="checkbox"/> 방문일시: 2017.6.1, 10:00 <input type="checkbox"/> 방문장소: Bordeaux-Strasse 5, 4053 Basel, Swiss <input type="checkbox"/> 주요 면담자: Dirk Wahlandt(잡팩토리 코칭책임자)
방문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경험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매년 300여명의 소외 청소년이 잡팩토리 쇼핑센터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그 중 70%가 취업·진학에 성공</li> </ul>
주요 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잡팩토리(Job Factory)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그 사회 안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지는 않으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표방하지는 않음</li> <li>○ 잡팩토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li> <li>○ 학교 교육과 직접 나와서 기술을 배우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학교만 졸업해서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스위스는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기술교육을 같이 받는다.</li> <li>○ 스위스에 250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학교에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처럼 스위스는 도제교육이 잘되어 있다.</li> <li>○ 잡팩토리가 하는 일은 학교교육과 도제교육 그 중간에서 차이가 나는 갭(gap)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다.</li> </ul> <input type="checkbox"/> 스위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명이 일하고 있고, 16명의 학생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120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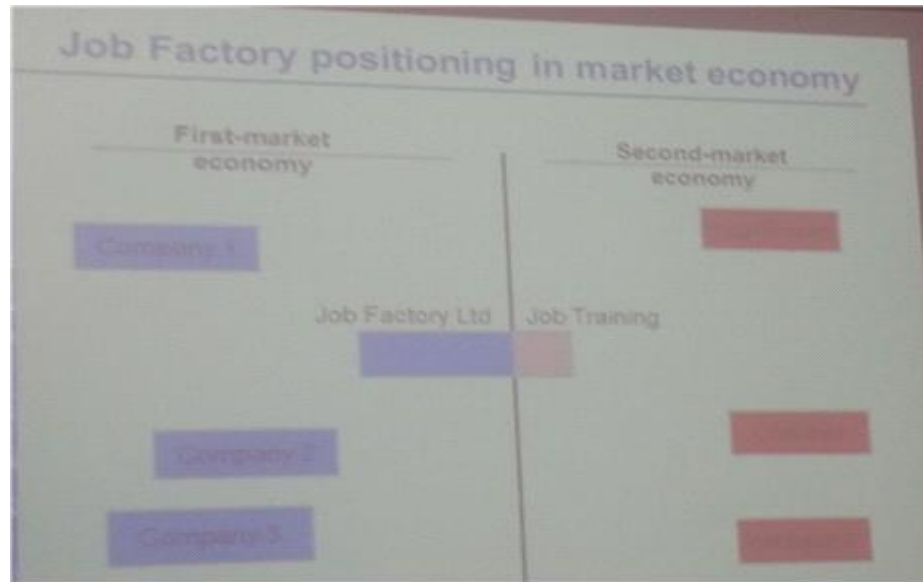
정도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잡팩토리 때문에 스위스에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여기 스위스는 그렇지 않았다.
- 1974년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8만명이다. 1990년 2차 노동시장이 44만명으로 2배가 들어났다 1974년 중소기업 중심에서 1990년 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 1차 노동시장: 일반인력, 즉 일반기업에서 채용하려는 근로자
  - \* 2차 노동시장: 장애인, 빈곤가정, 장기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 2008년 2차 노동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80만명이다. 대기업이 커지면서 직원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직업 찾기가 훨씬 어려워 졌다.



- 미래를 봤을 때는 2차 노동시장이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며 앞으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 앞으로 새로운 기업 창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질병이 있는 등 사회적약자를 고용을 할 수 있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중간에 걸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 대기업은 국가가 아닌 국제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사람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지금 보는 것처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 걸쳐있는 New Power와 잡팩토리와 같은 회사가 필요하다.
-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훈련이다. 학생들을 코칭한다.
  - 직업군을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직업군에 따라 학생들을 코칭을 한다.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하고 학생들에게 좋다고 기업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 약간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여 복잡하거나 힘든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단순노동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조립하는 것은 빨리 습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15개 직업군을 분류했다.
- Job Training 과정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10% 지원, 90% 자부담 한다. 종이 자르거나 프린트 인쇄 등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많이 한다.
- Job Factory는 인쇄 작업이나 목재 하는 작업처럼 실제 밖(1차 노동시장)에서 심하게 경쟁을 하는 일에 대해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 잡팩토리는 100명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업 찾는 것을 도와준다.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5~30세 이다.

<p>질의 응답</p>	<p><b>Q 스위스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가 있는지?</b></p> <p><b>A</b> 우선구매제도 없다. 시장에서 일반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 자체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런데 유로가 많이 낮아져서 여기 기업들이 경쟁에서 많이 힘들다. 사회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도시나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전혀 없다. 사기업과 순수 경쟁을 하고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p> <p><b>Q 정부지원은 없지만 사회적 기부 등은 있는지?</b></p> <p><b>A</b> 경제가 안 좋아서 잡팩토리가 일반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2차 노동시장은 사회에서 기부 등 조금씩 들어온다. 하지만 1차 노동시장은 기업으로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p> <p><b>Q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고용을 조정하는지?</b></p> <p><b>A</b> 2008~9년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스위스 화폐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가 어려웠다. 그때 청년 실업율이 높았다. 당시 우리는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을 했으며 3일 실습을 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했다. 120명을 줄여 본적은 없다.</p> <p>앞서 설명했듯이 2008년도에 2차 노동시장이 2배정도 커졌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업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뭘해야 하는지 어른들이 알려줘야 한다.</p> <p>15~25세 사이에 무엇을 본인이 직업으로 해야 하는지 못 찾는 학생들은 시에서 보면 정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10년 사이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찾아서 직업교육을 시켜야만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p>
<p>시사점</p>	<p>○ 스위스에는 사회적기업 제도가 없으나, 민간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실천하려는 활동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외부에 표방하려 하지 않는다. 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바라지 않으며 일반시장에서는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수익을 창출한다.</p> <p>○ 우리나라도 2차 노동시장인 취약계층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도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훈련, 사회적을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임</p>

-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가치나 사회적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기관 방문 사진 >



## 5 스위스 Freitag (사회적기업)

일시	<input type="checkbox"/> 방문일시: 2017.6.1, 14:00 <input type="checkbox"/> 방문장소: Binzmuhlestrasse 170b, 8050 Zurich, Swiss <input type="checkbox"/> 주요면담자: Elisabeth Isenegger(대외 관계 및 홍보 책임자)
방문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명품이 되다’ 말처럼, 쓰다버린 트럭 덮개, 폐천막, 자동차의 안전벨트 등 폐자원에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하여 새로운 명품 가방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li> </ul>
주요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이탁 형제가 처음 가방을 만들게 된 동기, 스위스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가방이 자주 젖곤 하였다. 어느 날 트럭을 덮고 있는 방수천을 보고 프라이탁 형제는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가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화물차 방수천을 재사용해 집에서 처음으로 비에 젖지 않는 가방을 만들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이렇게 처음 방수천을 업사이클링한 가방을 만들었고, 당시 이를 본 대학 친구들이 자기들 가방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2년 뒤 1993년 사업장을 만들고 버려지는 방수천을 업사이클링한 ‘프라이탁’ 가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li> </ul> </li> <li>○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120명 모든 공정은 여기서 이뤄지며 딱 하나 바느질만 다른 데서(프랑스) 작업해서 온다.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70명이다. 전 세계 각 판매장에도 1명 정도 나가 있다.</li> <li>○ 매년 약 40만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다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 만드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 방수천을 사가지고 와서 방수천 전체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고 방수천만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잘라낸 천을 가방을 만들지 다른데 사용할지 나누는 사람이 있고, 방수천을 화학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이탁가방 가격(20~70만원)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별 차이가 없음</li> <li>* 방수천은 5년 이상 된 제품만 사용</li> <li>* 재활용품을 다시 세척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세척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음, 방수천 같은 경우 유럽전역을 돌아 다니면서 묻은 각종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발생함</li> </ul> </li> <li>○ 가격이 상담함에도 수요가 있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모든 제품이 수작업으로</li> </ul> </li> </ul>



	<p>로 만들어지다 보니 단 하나도 같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디자인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드인 스위스라는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친환경 제품이라는 호소력이 있다. 이 프라이탁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li> <li>- 프라이탁 제품에 대한 수요는 첫 번째가 스위스, 두 번째가 일본·독일 등에서 많이 팔린다.</li> </ul>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사업을 하여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li> <li>- 우리 한국에도 ‘프라이탁’ 형제처럼 버려지는 자원을 업사이클링하는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처럼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회적기업은 없다.</li> <li>- 스위스처럼 폐자원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 구매수요가 발생하여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넘어 일반 대중에 대한 수요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i> <li>○ 청년·소셜 벤처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필요</li> </ul>

### < 기관 방문 사진 >



#### Ⅳ.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4급	정찬영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6급	박성국
3	고양시청 일자리창출과	8급	곽이랑
4	전주시청 사회적경제지원과	7급	서문지연
5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6급	조영설
6	인천 서구 일자리지원과	6급	이명숙
7	칠곡군 경제교통과	6급	권헌정
8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	5급	황영호